

문학석사 학위논문

자기개념, 통제소재  
및 불안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상담심리학 전공

권 순 실

2002년 2월

문학석사 학위논문

자기개념, 통제소재  
및 불안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상담심리학 전공  
권 순 실

2002년 2월

자기개념, 통제소재  
및 불안의 관계

The Relationship of Self-concept,  
Locus of control and Anxiety

지도 : 정 남 운 교수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1년 12월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상담심리학 전공

권 순 실

권순실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주심 \_\_\_\_\_ (인)

위원 \_\_\_\_\_ (인)

위원 \_\_\_\_\_ (인)

2001년 12월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감사의 글

감사의 글을 쓰려고 하니 후련함과 뿌듯함보다 아쉽고 미진한 마음이 더 많이 남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늦깎이로 시작한 대학원 과정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작은 결실을 맺기까지는 나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음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부족하기 한이없던 제자를 일일이 지도해주신 정남운 선생님, 선생님의 첫 논문 지도제자로 부끄럽지 않게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상하신 배려와 넉넉함으로 논문 쓰는 과정의 각성상태와 긴장을 잠시나마 늦추어 주셨던 이춘재 선생님, 김기중 선생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대학원 과정에서 학문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가르침과 본을 보여주신 심리학과 여러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더없는 자부심으로 남을 것입니다.

함께 논문쓰며 동고동락한 16기 동기생들과 논문방 식구들, 밤을 꼬박 새운 날 아침, 험직한 얼굴로 서로의 거울이 되어 안스러움을 씨익 웃음으로 넘기던 시간들...도움을 아끼지 않은 선.후배님들, 지면이 모자라 긴 얘기를 못합니다. 이들과 함께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만 말하겠습니다. 통계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해결사가 되어준 일청, 귀찮았을텐데도 내색 않고 한결같았던 표정관리(?)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병원 동행부터 설문조사 협조까지 적극적으로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세옥 언니, 고향 까마귀 같던 후배 효정의 사려깊은 마음은 안심하고 마음을 분출하는 통로가 되어주었고, 처음 외지에 와서 알게된 예쁘고 착한 후배 향미와 경희가 있어 많은 의지가 되었습니다. 친언니같던 구내서점의 사장님 내외분, 이모처럼 살피주시고 챙겨주신 많은 기억들 가운데 입맛을 잃었을 때 식욕을 되찾게 해 준 알타리 무우 김치의 아삭거리던 맛은 지금도 군침이 돌게 합니다. 그리고... 내 고향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월드비전을 품고 있는 통 큰 동갑내기 미숙,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만드는 편안한 내면의 소유자 영주, 이들과의 질과 양을 가리지 않는 수다야말로 완벽한 퇴행의 시간이 되어 마음을 쉬도록 해 주었습니다.

나의 가족들과 기쁨을 나누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딸이 하고자 하는 일은 무조건 믿어주시는 부모님, 한 남성으로서도 존경하는 아버지와 훌륭한 양육자로 인물매김을 하게 된 어머니, 이 두 분은 나의 영원한 지지처입니다. 그리고 만이가 다 해내지 못하는 빈 구석을 채워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다섯명의 동생들과 올케, 제부들이 고맙고 든든하고, 알알이 영근 탐스런 포도송이 같은 여덟 명의 귀여운 조카들은 언제보아도 가슴이 설레게 사랑스럽습니다. 나의 형제들에게 사랑의 빔진 것이 많지만, 가장 가까워서 격려와 위로가 되어주는 경실내외에게 특히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심리학이라는 한 새로운 세계를 알게하시고, 모든 과정에 동행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 목 차

|                        |    |
|------------------------|----|
| 논 문 개 요 .....          | 1  |
| I. 서 론 .....           | 2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2  |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 5  |
| 1) 불안 .....            | 5  |
| 2) 자기개념 .....          | 9  |
| 3) 통제소재 .....          | 10 |
| 3. 연구문제 및 가설 .....     | 17 |
| II. 연구방법 .....         | 18 |
| 1. 피험자 .....           | 18 |
| 2. 측정도구 .....          | 18 |
| 3. 분석방법 .....          | 22 |
| III. 결 과 .....         | 23 |
| IV. 논 의 .....          | 36 |
| 참 고 문 헌 .....          | 42 |
| 부 록 .....              | 49 |
| 영문논문제출서 .....          | 60 |
| 영문인준서 .....            | 61 |
| 영문초록 .....             | 62 |

## 표 목 차

|                                                             |    |
|-------------------------------------------------------------|----|
| <표 1> 자기개념 영역 점수간의 상관계수 .....                               | 23 |
| <표 2> 자기개념 영역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                            | 24 |
| <표 3> 자기개념 영역별 점수와 관련척도의 상관계수 .....                         | 25 |
| <표 4> 상태불안, 특성불안, 통제소재의 평균과 표준편차 .....                      | 26 |
| <표 5> 자기개념의 높고 낮음에 따른 영역별 불안점수의<br>평균과 표준편차 및 차이검증 결과 ..... | 27 |
| <표 6> 내-외통제에 따른 상태불안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차이검증 .....                 | 28 |
| <표 7> 내-외통제에 따른 특성불안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차이검증 .....                 | 28 |
| <표 8> 자기개념의 영역별 개선가능정도 평가점수의<br>평균과 표준편차 .....              | 29 |
| <표 9> 학업성적 영역과 통제소재의 특성불안에 대한 이원변량분석결과 .....                | 31 |
| <표10> 지적능력 영역과 통제소재의 특성불안에 대한 이원변량분석결과 .....                | 31 |
| <표11> 지식수준 영역과 통제소재의 특성불안에 대한 이원변량분석결과 .....                | 33 |
| <표12> 인생관 및 가치관 영역과 통제소재의 특성불안에 대한<br>이원변량분석 결과 .....       | 33 |
| <표13> 외모영역과 통제소재의 특성불안에 대한 이원변량분석결과 .....                   | 34 |
| <표14> 가족관계 영역과 통제소재의 특성불안에 대한 이원변량분석결과 .....                | 35 |
| <표15> 이성관계 영역과 통제소재의 특성불안에 대한 이원변량분석결과 .....                | 35 |

## 그림 목차

|                                             |    |
|---------------------------------------------|----|
| <그림 1> 지적능력 영역과 통제소재의 특성불안에 대한 상호작용효과 ..... | 32 |
|---------------------------------------------|----|

## 논 문 개 요

본 연구는 자기개념의 전체영역과 내-외 통제성, 불안과의 관계를 밝히고 불안에 완충작용을 하는 기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334명의 대학생 피험자들에게 178문항의 설문지를 실시하여 이 중 결측치를 제외하고 317명( 남자 68명, 여자 249명. 평균연령 21.88세)의 자료를 얻었다.

측정도구로는 Spielberger의 상태-특성 불안검사, 권석만이 개발한 다면적 자기개념검사, Rotter의 내-외 통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자기개념의 높고 낮음에 따른 불안점수의 차이, 내-외통제에 따른 불안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t -검증과, 자기개념과 통제소재의 불안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문제 1 에서는 자기개념의 각 영역별로 자기개념이 낮을 때가 자기개념이 높을 때보다 불안점수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으며, 연구문제 2 에는 외적통제자가 내적통제자보다 불안점수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연구문제 3 에서는 내-외통제가 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자기개념 영역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가설로서, 자신의 노력으로 개선가능성이 높다고 지각한 자기개념 영역에서 자기개념이 낮을 때는 외적통제자가 내적통제자보다 불안수준이 낮았으며, 자신의 노력으로 개선 가능성이 낮다고 지각한 자기개념 영역의 자기개념이 낮을 때는 내적통제자가 외적통제자보다 불안의 수준이 낮아지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에서 제한점, 의의, 추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들을 언급했다.

---

주요어: 불안, 자기개념, 통제소재

# I 서 론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불안과 우울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인지적 처리과정, 자기불일치, 자동적 사고내용과 같은 여러 인지적 요인들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밝히고 있다. 그 가운데 자기개념과 정서적 문제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권석만, 1996b). 자기개념은 “자기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 인식 및 평가를 반영하는 인지적 개념”을 의미하며, 자기개념을 측정하려고 시도한 여러 학자들은 자기개념의 하위영역 또는 구성요소를 세분화하려고 노력했다.

불안과 자기개념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두 변인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어 불안이 높은 사람은 자기개념이 낮다, 혹은 자기개념이 낮은 사람은 불안이 높다는 순환론적인 증거들이 있다.

불안과 관련된 또 한 가지 성격적 차원으로 통제의 소재(locus of control)가 있는데 통제의 소재란 환경에 대한 통제력의 소재를 어디에 두느냐(Rotter등, 1972)하는 것으로, 내적 통제는 통제력이 자기자신의 능력, 노력 등 자신의 비교적 영속적인 특징들의 결과라고 믿는 신념이며, 외적 통제는 통제력이 운이나 우연, 운명의 결과이며 권력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통제하에 있는 것으로, 또는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믿는 신념이다.

불안과 자기개념과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들로 김선옥(1981)은 특성불안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자아개념의 하위요인들(자아수용, 성격적 자아, 가정적 자

아) 에서 자아개념이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고 성차(性差)는 약간 의미가 있거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허동기(1989)는 자아개념과 학업성취의 관계는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자아개념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재식(1990)의 연구는 자기의 개념을 미래적 측면까지 확장하여 살펴보았는데, 자기개념 사이의 괴리와 우울, 불안 성향과의 관계는 단순히 현재와 미래 자기의 괴리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현재보다 미래의 자기가 더 긍정적이며 그 괴리가 클수록 개인은 정서적 불편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성금자(1993)는 초등 학교 아동의 불안과 자아개념간의 상관관계 연구에서 불안이 낮을수록 자아개념이 긍정적으로 발달된다고 하였으며, 김정호(1999)는 대학생의 자기개념이 사회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자기개념의 하위영역 점수와 평가차원 점수가 사회불안, 우울과 상관되는 영역이 다름을 보여주었다.

김윤희(2001)는 그의 연구에서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범불안장애의 핵심증상으로서 불안장애의 하위유형으로 분류되므로 자기개념의 8개의 평가차원별로 걱정이 어떤 특성들을 보이는지를 밝히기 위해 우울집단 및 정상집단간의 비교를 통해 걱정집단은 8개의 평가차원 중 부정평가도, 고민정도, 이상-현실 불일치도, 기대-현실 불일치도에서는 우울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긍정평가도, 중요도, 개선가능정도, 만족도의 4개 차원들에서 우울집단보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불안과 통제소재와 관련된 연구에서 박석기(1984)는 내외통제적 성격과 자아개념과의 관계는 내적통제성이 강할수록 자아개념이 긍정적이며, 자신을 높게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환경통제능력 혹은 환경통제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자신감이 강하다고 하였고, 최승애(1988)는 성취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의 스트레스 완충효과는 내부통제집단이 도구적 지지를 받았을 때에만 얻어져, 스트레스 사건의 특성에 따라 효과적인 지지유형이 있다는 스트레스 지

지 특정적 가설과,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는 수용자의 개인 특성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가설을 지지했다. 박선희(1991)는 내외통제성과 적응기제와의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이 있음을 밝혀 내적 지향일수록 방어기제를 사용하며, 우연 지향적인 사람들일수록 공격기제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정희(1998)는 자아개념이 높고 내적통제성을 가지며 불안이 낮을수록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이 높다고 밝히고 있으며, 김원중(1984)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내적통제집단의 진로의식 성숙수준이 외적통제 집단의 진로의식 성숙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채기(1991)의 연구에서도 내적통제 집단이 외적통제 집단보다 진로결정 유형에 있어 더 합리적이며 그 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자아개념과 불안 통제소재에 관해 연구한 Denovan, D. M., Smith, L., Paige, A. B., & O'Leary, M. R (1975)은 내-외 통제성과 불안검사(MAS)점수의 상관이 신경증과 부정적 자기개념에 중재된다는 가설을 검증한 O'Leary, Donovan and Hague(1974) 등의 연구를 반복 연구했는데, MAS와 같은 자기보고식 검사와 APQ의 자율적(nonobtrusive) 검사의 차이로 자아개념검사에서 다른 결과를 산출했으며, 추후 MAS검사의 내적 일관성과 차원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측정도구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Dustin Fink, M. L. Johnson, Catherine Kennedy, and Charles Porter(2001)는 상태불안과 통제소재의 상관연구에서 외적통제자는 높은 수행불안과 관련된다는 유의할만한 경험적 증거를 얻었다고 했다.

또한, 통제소재와 불안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통제소재와 불안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외적 통제가 내적통제자보다 높은 수준의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내적통제자들이 외적통제자들에 비해 작업수행능력이나 성취도, 정신건강 면에서 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자기개념과 내-외 통제적 성격은 그 개념과 실증적인 연구들을 살펴볼 때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자기개념은 개인의 자각지각과 평가이고 내-외 통제적 성격은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지각이므로 한 개인이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행동결과의 지각이 달라질 것이다.

이전의 연구들에서 자아개념과 불안, 자아개념과 통제소재를 변인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취욕구, 타인지각, 적응, 성숙, 진로, 지각적 양식 등의 다양한 수준에서, 특정한 한 변인과 자아개념 간의 관계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연구 대상이 초등학생, 중고생, 대학생으로 다양했는데, 자기개념, 불안, 통제소재의 세 가지 변인의 관련성을 밝히거나 자아개념에 미치는 몇 측면들의 상호작용적 영향에 대하여는 연구된 바가 없었다.

자기개념이라는 것이 수많은 영역들에 대한 여러가지 평가차원을 포함하는 방대한 구성개념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자기개념의 각 영역별로 관련변인들과 어떤 상관이나 특성을 보이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선행연구들로부터 자아개념과 관계있는 요인으로 밝혀진 두 변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 세 가지 변인 각각의 개념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며, 궁극적으로는 자기개념과 내-외통제성이 불안에 완충작용을 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1) 불안

불안은 누구나 가지고있는 인간의 기본 정서로서 철학과 종교적 측면, 그리고 인문사회, 과학영역에서 연구되어 왔다. Freud 와 다른 심리학자들이 출현하기 전까지 불안은 철학의 영역인 윤리학과 종교의 영역에서 다루어졌다. 따라서 불안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철학적 관점과 심리학적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철학적 관점에서 실존주의 철학자인 Kierkegaard, Jaspers, Heidegger, Sartre가 불안을 Dread나 Anguish 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종교와 도덕적 딜레마를 불안의 원인으로 생각하였다. 즉 불안을 인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간 실존과 직결되는 회피할 수 없는 불가분의 자연스러운 정서로 보고 불안의 원인을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갈등에서 찾고 있었다. 실존철학자들은 불안의 문제를 철학적 문제로 다루어 이성인 정서를 지배할 수 있다는 이론을 부정하고, 인간이 생각하는 유기체만이 아니라 느끼고 행동하는 유기체로 현실을 체험하고 접근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불안을 인간실존의 보편적인 구성요소 또는 기본정서로 보았고, 이것이 개인의 모든 과업성취에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Freud(1936, 1959)는 불안을 무의식적 충동들이 떠오르는 위험 신호로 보았고, Sullivan(1953)은 주위의 중요한 인물들이 부정적 평가를 한다는 지각을 불안으로 보았다. Mowrer(1950)는 불안을 혐오적 사건이 곧 발생할 것을 경고해주는 일군의 자극들에 대한 학습된 반응으로, Roger(1951)는 자기개념에 대한 위협으로 보았다. Rotter(1954)는 욕구와 기대간의 불일치를 깨달았을 때 불안이 발생한다고 보았으며, Lazarus(1966)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위협을 지각하고 그 때문에 분명하게 행동할 수 없는 것이 불안이라고 하였다. Epstein(1967)은 위협지각에 뒤따르는 정서적 각성상태를 불안으로 보고, Beck(1971)은 위협의 인지평가에 따르는 감정 상태를, Mendler(1972)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을 갖는 것을 불안이라 하였다.(홍숙기 역, 성격심리학, 1987)

이와 같이 심리학적 관점에서 불안은 Anxiety 나 Stress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자극의 유형이나 과정에 따라서 개인이 의식하게 되는 불안을 학습과 관련지워 설명하고 과학적 배경에서 불안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불확실한 대상에서 야기되는 심리현상이나 불분명한 미래에 대한 근심과 같은 감정을 불안으로 보고 개인

이 어떤 자극에 직면할 때, 불안이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인간 유기체의 역동과 학습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불안을 경험하지만, 불안한 사람에게는 다음의 세 요소가 흔히 발견된다(Maher, 1966). 첫째는 두려움이나 위협에 대한 느낌인데 이러한 느낌을 설명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이다. 둘째는 생리적 각성과 신체적 고통의 양식으로 불안에 대한 장기적인 심장혈관, 호흡기 및 장기 등의 신체적인 체계에 만성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는, 효과적인 문제 해결과 인지적 통제의 붕괴 또는 혼란으로 여기에는 환경적 요구를 분명히 이해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불안과 공포의 관심도 불안의 복잡성과 이론적 개념의 모호성과 불명확성 때문에 서로 약간씩의 다른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적당한 측정도구의 결여로 잘 진척되지 않았다.

그러나 불안에 관한 측정은 1950년대 초에 심리학 영역에서 조금씩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Taylor (1951)에 의해 MAS(Manifest Anxiety Scale)가 개발되면서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그 후 Mandler와 Sarason(1952)이 TAQ(Test Anxiety Questionnaire)를 구성하여 지능검사 등 시험상황에서 나타나는 피험자의 불안반응을 측정하였으며, Mandler와 Cowen(1958)은 이를 고교생용으로 번안하여 TAS(Test Anxiety Scale)를 개발하였다. 이어 Sarason(1958)은 이를 아동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TASC(Test Anxiety Scale For Children)를 개발하였고, Alpert와 Harbor(1960)는 시험장면에서 스트레스에 의해 학업성취가 촉진되는 사람과 방해받는 사람을 구별하기 위하여 AAT(The Achievement Anxiety Test)를 제작하였으며, Spielberger와 Gorsuch (1970)에 의해 STAI(State Trait Anxiety Inventory)가 제작되었다. 이밖에 많은 불안척도 검사가 이미 제작되었거나 개발되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제작되어진 불안 검사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Spielberger와

Gorsuch (1970)에 의해 제작된 STAI (State-Trait Anxiety Inventory)를 김정택 (1978)이 번안하여 한국형으로 표준화함으로서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STAI (State-Trait Anxiety Inventory)는 1과 2로 나누어서 각각 상태불안(StateAnxiety)과 특성불안(Trait Anxiety)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Spielberger (1972)는 불안을 일련의 정서적 과정에서 이해하고자, 유기체의 오래 가지 않는 상태로서의 상태불안(State Anxiety)과 비교적 안정된 성격특성으로서의 특성불안 (Trait Anxiety)으로 구분하여 개념화 하였다.

상태불안은 지각된 염려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며 자율신경 계통의 각성으로 특징지어지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고 그 상황에 따라 불안의 정도가 다양하며, 특성불안은 광범위한 여러 종류의 상황들을 위협한 것으로 지각하고,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불안상태로 반응하는 비교적 안정된 개인경향성을 말한다.

특성불안 척도는 기본적으로 불안성향의 개인차를 측정하는 것으로, 한 개인이 여러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을 알아보려는 것으로 특성불안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사람은 광범위한 자극들에 대해서 위협을 경험할 것이다. 반면 상태불안은 객관적인 위협에 관계없이 개인에게 위협으로 지각되는 상황에서 높게 나타난다. 특성불안이 높은 사람은 자기비난적이며, 자기자신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자아존중감과 관계된 검사상황, 실패가 예측되는 상황, 자신의 능력과 관계된 상황일 때, 특성불안이 높은 사람은 더 큰 위협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enny, 1966; Spielberger & Smith, 1966). 이렇게 특성불안과 상태불안의 관계를 두 가지 스트레스원에서 실험한 결과 높은 특성불안은 실패에 대한 위협이나 자존심에 관계되는 심리적 스트레스원에서는 심한 상태불안을 나타내지만, 물리적 스트레스원에서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Katkin, 1965; Hodges & Spielberger, 1966).

## 2) 자기개념

자기개념 혹은 자아개념에 대한 논의는 ‘개인으로서의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개인으로서의 자신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전제로하는 총체적 영상(total picture)이며, 동의어로 볼 수 있는 것은 자아(self), 자신(ego), 자아지식(self-knowledge), 자아정체(self-identity), 자기이해(self-understanding), 자아상(self-image), 자아존중감(self-esteem), 현상적 자아(phenomenal self) 등이 있으며(송인섭, 1989), ‘자기자신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 인식 및 평가를 반영하는 인지적 관념’을 의미한다(권석만, 1996 b).

자기개념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현상학적 접근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기개념의 주된 기능과 특징을 여러 연구자들 (Epstein, 1973; Markus, 1977, 1990; Marsh; Relich, & Smith, 1983; Shavelson & Bolus, 1982; Wylie, 1961)에 근거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권석만, 1996 b).

첫째, 자기개념은 외부세계와 공간적으로 분리된 독립적 개체라는 의식을 포함한다. 따라서 자기개념은 경계를 가지며 ‘나(self)’와 ‘나 아닌 것(nonself)’의 구분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자기개념은 시간적으로 지속되는 일관성 있는 동일한 개체라는 의식을 포함하며 시간의 흐름과 경험의 누적으로 인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동일하게 존재하는 자기정체감을 갖게 한다.

셋째, 자기개념은 다양한 과거경험을 조직적으로 축적하는 하나의 기억체계로서,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이며 위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기개념은 신체적 자기, 정신적 자기, 사회적 자기와 같은 여러 가지 경험적 자기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자기개념은 기술적 차원과 평가적 차원을 모두 가지고 있다.

넷째, 자기개념은 경험에 의해 변화되는 역동적 조직체로서 경험의 누적, 특히 중

요한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 자기개념은 단순히 과거경험을 저장하는 정적인 실체가 아니라 역동적인 실체이다. 개인이 성장하고 발달함에 따라 자기개념은 점점 더 다차원적으로 발전한다. 전반적인 자기개념은 안정적이지만 위계적 구조의 하위요소일수록 상황특수적(situation-specific)이 되며 따라서 불안정해진다.

마지막으로, 개인은 자기개념의 여러 측면과 관련된 자기존중감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갖는다. 개인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유지시키고자 하며 이러한 자기개념이 위협받으면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위협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려고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방어가 성공적이지 못하고 위협이 지속되면 궁극적으로 성격의 전체적인 와해가 일어날 수 있다.

자기자신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평가 즉 자기개념은 정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심리학자 중에는 인간의 정서적 문제가 근원적으로 자기개념의 문제로 귀착될 수 있다고 보는 학자들 (예: Beck, 1967, 1976; Higgins, 1987; Ingram, 1984; Segal, 1988)이 많다. 인간은 자기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자기존중감과 자기가 치감이 위협받거나 훼손되었다고 느낄 때 정서적 고통을 느끼게 된다

### 3) 통제소재

인간의 행동은 각 개인이 갖추고 있는 성격적 특성과 그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적 상황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는데, Rotter(1954)의 사회학습이론 (social learning theory)이 대두되면서 인간행동의 결정요인이 되고 있는 개인의 성격 특성과 환경적 상황의 상호작용을 밝히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Rotter의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발생할 잠재력은 그 상황에서 강화가 있으리라는 개인의 기대, 혹은 신념과

그 강화가 주는 가치에 달려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내-외 통제에 대한 한 개인의 ‘신념체계’는 그 개인의 행동을 좌우하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으로 여겨진다.

환경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 여부와 자기의 행동결과와 강화간의 일관성 여부 등 일반화된 기대(*generalized expectancy*)를 측정키 위해서 Internal- External Control Scale (이후 I-E척도라 칭함) 이 Rotter (1966)에 의해 제작되고 그와 관련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I-E 척도는 중요한 심리적 성격측정 도구로 등장하였다. I-E 척도의 문항분석이나 신뢰도 연구 및 개개의 문항이 갖고 있는 요인을 밝힌 요인분석 연구는 물론 타당도 검증을 위한 다른 심리적 준거요인들과의 관계연구도 많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I-E 성격변인과 타 준거변인들과의 관계연구는 척도의 유용성뿐만 아니라 척도가 갖는 이론적 성격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차재호, 공정자 및 김철수(1973)가 Rotter(1966)의 I-E척도를 기초로 “내-외 통제척도”를 제작한 바 있다. I-E 척도는 환경에 대한 통제 및 행동결과와 그에 따른 강화에 대한 개인의 일반화된 기대와 통제소재 (*locus of control*)을 밝히려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 통제라는 구성개념은 수많은 상황에 당면해서 생긴 일반화된 기대 즉 개인이 그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예측, 통제할 능력이 있다고 지각하는가 혹은 결여되어 있다고 지각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통제소재는 어떤 사건이던 자신의 행동결과로서 자기의 통제하에 있다고 보는 내적 통제(*internal control*)와 자기의 행동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즉 자신의 통제 밖의 것으로 보는 외적통제(*external control*)의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이상의 내-외 통제소재에 대한 개념을 Rotter(1966)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한 강화가 그 사람에게 의해 자신의 행동에 뒤따르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자기 행동의 결과는 아닌 것으로 지각될 때, 우리 문화에서는 그것이 운, 우연, 운명

의 결과로, 권력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통제하에 있는 것으로, 또는 피험자를 둘러싸는 세력들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지각되기 마련이다. 그 사상이 한 개인에 의해 이런 식으로 해석될 때, 우리는 그것을 ‘외재적 통제’의 신념이라고 불러 왔다. 그 사상이 자신의 행동 혹은 자신의 비교적 영속적인 특징들의 결과라고 지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재적 통제’의 신념이라고 이름붙여 왔다(홍숙기 역. 성격심리학, 1987).

위에서 살펴본 대로 내-외 통제의 구성개념은 기대변인(expectancy variable)이다. 강화가 지니고 있는 속성과 그것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개념은 일반적으로 사회학습이론(Rotter, 1954, 1960)에 이론적 배경을 두고 있다. 내-외통제는 유형론은 아니며, 그것은 하나의 연속선으로서 개인은 한 쪽 끝의 외적통제로부터 다른 쪽 끝의 내적통제에 이르기까지 그 연속선상 어디에든지 속하게 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의 어디쯤에 몰려 있다. 내적통제, 외적통제 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의미론적 편리함 때문이다. I-E에 대한 연구는 Phares (1957)의 연구로부터 시작하였으며, 이것은 단순한 연구로서 한 과제에서의 성공이 우연요인(偶然要因)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믿을 때와 기술요인(技術要因)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믿을 때에 서로 다른 기대가 발달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결과의 요점은 성공이나 실패의 결과로 기대가 변하는 정도가 우연조건에서보다는 기술조건에서 더 크다는 것이었다. James(1957)도 기술조건과 우연조건 하에서 기대가 서로 다르게 일반화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Strickland(1977)가 지적하듯이 “이 연구들의 중요성은 인간의 학습과 수행이 강화의 함수일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통제소재의 지각에도 의존한다는 사실에 있다”.

‘I-E척도’(Rotter, 1966)는 Phares(1955), James(1957)가 개발한 초기의 척도들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그 최종판은 Rotter가 동료들인 Shephard Liverant, Douglas Crown 및 Melvin Seeman등과 함께 개발하였다. Rotter의 I-E척도는 성인들에게 가장 널리 사용되어 온 측정법이였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I-E가 단일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몇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라는 증거가 쌓여왔다. 이 척도의 출판 후 곧 다양한 다른 측정방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어떤 것들은 아동용으로, 어떤 것들은 성인용으로 만들어졌다.

I-E와 관련된 여러 연구들 중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반응과 I-E 는 외적통제자들이 응종과 동조를 잘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상당히 많이 누적되어 왔는데 그들은 더 잘 설득당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더 잘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기대와 욕구 둘 다 때문일 것인데 외적통제자들은 스스로의 행동의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고 예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기꺼이 의존한다. 반면 내적통제자들은 스스로의 능력에 더 자신이 있는 것같이 보이며 따라서 더 독립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적통제자들은 통제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남들이 자신을 조종하려고 하면 언제나 저항한다.

정보추구와 I-E 에 관한 연구에서는 내-외 통제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아마도 환경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방식들에 있을 것으로 보며, 행동에 뒤따르는 강화를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면 환경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는 I-E 연구문헌을 관통하는 하나의 가장 일반적인 결과인 것같이 보인다.

귀인과정과 I-E 관련 연구에서는 내적통제자들이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에게 귀속시키는 반면, 외적통제자들은 그 책임을 다른 어디로 귀속시킨다. 또한 일반적으로 내-외 통제자들은 남들에 대해서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으로 보인다(Phares & Wilson, 1972; Sosis, 1974; Hochreich, 1972). 이는 I-E 신념이 우리가 스스로의 행동을 어떻게 보느냐에

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며, 우리가 남들을 어떻게 보는가를 결정해 주기도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과에 비춰볼 때, 성취에 있어서도 I-E차이를 예상할 수 있는데 상당한 연구가 이러한 예상을 지지해주는 것같이 보인다(Lefcourt, 1982; Phares, 1976; Strickland, 1977). 전체로 볼 때 내적 통제가 성취행동과 직접 관계가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 같다. “내적통제자들은 지적 및 동작과제들상에서 더 열심히 임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즉각적 충족을 지연시킴으로서 더 좋은 성적을 받고 더 바람직한 강화를 받는다는 점에서 그들의 노력에는 보상이 따르기도 하는 것 같다”(Strickland, 1977, p.240).

I-E에 대한 연구는 치료 중의 환자가 체험하는 문제들의 맥락에서 비롯되었고 주요 초점은 계속 I-E 신념과 적응 간의 관계에 주어졌다. 이러한 연구는 내적통제자들이 더 잘 적응되고, 덜 불안하고, 정신과적 진단명을 덜 받게 된다는 것을 일관성 있게 나타내 주었다(Phares, 1976, 1978). 내적통제자들은 능동적이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적응에 유리한 성공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지 모르며, 혹은 아마도 자기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것만으로도 적응수준이 높아져서 불안의 성장이 지체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연구영역에서 대부분의 자료는 상관연구이므로 원인과 결과를 떼어내기가 매우 힘들다. 외적통제 신념이 불안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불안이 어느 정도의 외적통제의 경향을 자극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불안과 I-E 상관들에서 볼 때, 외적통제보다 내적통제가 분명히 더 좋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에는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Wolk와 Kurtz (1975)는 양로원 같은 시설에 살고 있지 않은 노인들의 전집에서 내적통제 지향이 적응 및 충족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그 연구자들은 외부시설에 살고 있는 내적통제자들은 어떻게 느낄 것인지를 궁금해 하였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 통제의 기회를 얻기 어려운 곳에서는 내적통제 지향의 사람들의 적응이 특히 어려울 것

이며 실제로 그러한 환경에서는 외적통제 신념체계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Felton 과 Kahana(1974)가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전집에서 발견한 것이었으며, 그러므로 내적통제가 좋으나 외적통제가 좋으나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시대에 따라 I-E 신념이 변했다는 것도 흥미로운 사실인데, I-E척도가 1950년대와 1960년대 초에 미국에서 처음 사용되었을 때 평균치는 흔히 7점과 8점 사이였는데, 15년후 이 평균치는 11점과 12점 사이에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 때문인가 하는 의문에 Rotter(1975), Phares(1976) 는 모두 그 시기에 널리 퍼진 소외의 풍조가 I-E 점수에 반영된 것이라고 시사한다. 이는 인종차별을 실시하는 나라에 대한 환멸이 많은 사람들을 외적통제지향이 되도록 고무했고, 또 월남전과 워터게이트 추문 등이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을 무력감, 저하된 개인적 통제를 느끼는 것같이 보이게 하였다. Cellini 와 Kantorowski(1982)의 연구에서 나온 최근의 자료도 내-외통제 점수가 지난 몇 년간 점점 외적통제가 되었다는 것을 드러낸다.

바로 위에서처럼 어떤 외적통제신념은 현실의 혹은 예상된 실패를 합리화하려는 욕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I-E 신념들의 다른 선행조건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연구들이 I-E 신념의 원인을 알아내는 것보다 그 신념의 결과를 알아내는 데서 밝혀진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홍숙기 역. 성격심리학, 1987, pp. 484-491).

Harrow(1969)는 정신과 환자 중에서도 보다 더 심한 정신병증(psychopathy)을 가졌고 사회적 능력(social skill)이 부족한 환자들이 외적통제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는데 Kuyper 의 연구에서는 오히려 일부 항목에서 내적통제자들이 보다 더 미숙한 방어기제(coping processes)를 가진다고 했으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외적통제자들이 필요할 때 전위 (displacement)나 투사(projection) 등의 방어기제를 적절히 사용하여 적응해 나가고 있다고 하였다(Haan, 1982).

내-외 통제특성은 스트레스 과정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연구와는 독립적으로 그 자체가 스트레스 완충변인으로서 연구되어 온 것이다. Johnson 과 Sarason (1978)은 생활경험조사(Life Experience Survey: LES) 질문지로 측정한 부정적 생활변화와 우울, 불안 측정치간의 정적 관계가 외부통제자들에게서만 얻어지며, 내부통제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음을 보고하였고, Kobasa(1979)는 스트레스-질병간에 보다 높은 정적 관계를 보이는 사람들은 Rotter (1966)의 내-외 통제 척도상에서 외부 통제 점수를 받음을 보고 하였다.

Johnson 등(1978)은 통제성격변인이 생활사건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이 될 수 있음을 그의 연구에서 밝힌 바 있으며, 불안과 통제소재에 대한 근래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상태로서의 불안에서 통제유형을 중재변인으로 간주하여 상태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그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다(Burnett, 1981; Sandler & Lakey, 1982; Archer & Kutash, 1982).

### 3. 연구문제 및 가설

연구문제1 : 자기개념의 높고 낮음에 따라 불안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 자기개념이 낮을 때는 자기개념이 높을 때보다 불안점수가 높을 것이다.

연구문제2 : 내-외 통제에 따라 불안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 외적통제자가 내적통제자에 비해 불안점수가 높을 것이다.

연구문제 3 : 내-외 통제가 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자기개념 영역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설1: 자신의 노력으로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지각한 영역의 자기개념이 낮을 때는 내적통제자가 외적통제자보다 불안의 점수가 낮을 것이다.

가설2: 자신의 노력으로 개선 가능성이 낮다고 지각한 영역의 자기개념이 낮을 때는 외적통제자가 내적통제자보다 불안의 점수가 낮을 것이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피험자, 측정도구,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피험자

가톨릭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피험자들에게 총 17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각 설문지는 본 연구자가 강의실에서 연구목적과 주의사항을 설명한 후 실시하였으며,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20여 분 정도였다. 총 334 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결측치를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된 것은 317 부였다. 이들을 성별로 보면 남자 68명 (21.5%), 여자 249명(78.5%)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1.88세(18세- 48세)였다.

### 2. 측정도구

#### 1) 불안 측정도구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Spielberger(1970)가 고안한 상태-특성 자기평가 불안척도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를 김정택(197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국내 연구에서도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

고, 한국인에 대한 표준화도 시도되었다. 이 척도는 총 40 문항으로 상태불안을 측정하는 20 문항, 특성불안을 측정하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태불안은 10개(1, 2, 5, 8, 10, 11, 15, 16, 19, 20번), 특성불안은 7개( 21, 26, 27, 30, 33, 36, 39번)의 도치문항이 있고, 각 문항마다 정도에 따라 4 점 척도로 채점하도록 되어 있다.

## 2) 자기개념 검사

다면적 자기개념 검사(Multiphasic Self-Concept Inventory: MSCI): 이 검사는 자기개념의 여러 영역에 대하여 다양한 차원에서의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 권석만(1996)에 의해 개발된 자기보고형 질문지이다. 모두 14개의 자기개념 영역에 대해 8가지 차원에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1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개념 영역에는 외모 및 신체적 매력, 건강 및 운동능력, 가족의 재산, 성격 및 성격적 매력,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 능력, 지적능력, 지식수준, 학업수준, 인생관과 가치관의 확립정도, 교우관계, 이성관계, 가족관계, 사회적 신분 등이 포함되며, 평가차원에는 중요도, 긍정평가도, 부정평가도, 이상-현실 불일치도, 기대-현실 불일치도, 고민정도, 개선가능정도, 만족도가 포함된다.

자기개념의 차원은 다양한 자기영역을 평가하는 관점을 의미한다. 첫째는 자기영역에 대한 중요도이다. 이 차원은 각각의 자기영역이 자신의 행복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는 자기영역에 대한 긍정평가도이며, 셋째는 부정평가도이다. 이 두 차원은 현실적 자기(real self)에 대한 평가차원이다. 즉 각 자기영역의 현재상태에 대해서 평가하는 긍정성-부정성의 차원을 의미한다. 자기영역 긍정평가도는 주변 동료와 비교하여 자기영역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의 정도를 평정하는 것이고, 부정평가도는 특정한 비교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자기영역을 얼마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를 평정하는 것이다. 넷째는 자기영역에 대한 이상-현

실불일치도이다. 이 차원은 이상적 자기(ideal self)와 현실적 자기의 괴리정도를 의미한다. 각 자기영역에 있어서 현재의 상태와 자신이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상태와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정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자기영역에 대한 기대-현실 불일치도이다. 이 차원은 의무적 자기(ought self)와 현실적 자기의 괴리 정도를 의미한다. 의무적 자기는 중요한 타인에 의해서 기대되는 자신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요한 타인을 부모로 설정하였다. 이 차원은 부모에 의해 기대되는 자기영역과 현재의 상태간의 차이를 평정하게 한다. 여섯째는 자기영역에 대한 개선가능정도이다. 이 차원은 가능한 자기(possible self)를 반영한다. 즉 각 자기영역이 앞으로 노력하면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기지각을 의미한다. 일곱째 차원은 자기영역에 대한 고민정도이다. 이 차원은 자기영역에 대해 고통스러워하는 주관적인 고민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여덟째는 자기영역에 대한 만족도이다. 이 차원은 각 자기영역에 대한 종합적 평가의 결과 주관적으로 인식되는 만족도를 의미한다.

이 검사의 각 문항은 특정한 자기영역을 특정한 평가차원에서 기술하는 문항에 대해서 피험자가 4점 Likert 척도(0: 전혀 아니다; 1: 약간 그렇다; 2: 상당히 그렇다; 3: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자기개념의 차원별 점수는 14개 자기영역에 대한 중요도, 긍정평가도, 부정평가도, 이상-현실 불일치도, 기대-현실 불일치도, 개선가능정도, 고민정도, 만족도의 8개 차원에 대한 점수로서 각 차원의 점수 범위는 0점에서 5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14개 자기영역에 대해서 특정 평가차원에서 평가한 속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기개념의 영역별 점수는 특정한 자기영역에 대한 8차원의 점수를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함으로써 산출될 수 있다. 각 영역에 대한 점수는 [(부정평가도)+(이상-현실 불일치도)+(기대-현실 불일치도)+(고민정도)-(긍정평가도)-(만족도)-(개선가능정도)] × (중요도)의 공식에 의해 산출된다. 이 점수의 부호나 크기는 특정한

자기영역에 대한 종합적 평가의 긍정성-부정성의 방향 및 그 크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자기영역의 범주별 점수가 산출될 수 있는데, 외모, 신체적 건강, 가족의 재산에 대한 점수의 합은 물질적 자기 점수로, 성격, 지적능력,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 능력, 학업성적, 지식수준, 인생관과 가치관에 대한 점수의 합은 정신적 자기 점수로, 그리고 교우관계, 이성관계, 가족관계, 사회적 신분과 지위에 대한 점수의 합은 사회적 자기 점수로 계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수는 세분화된 자기영역의 상위범주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 된다.

그밖에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하위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 8개 차원의 점수 또는 14개 영역의 점수를 적절히 조합하여 가감승제하면 자기개념의 여러 속성을 반영하는 하위점수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긍정평가도)+(만족도)+(개선가능정도)는 자기개념의 긍정적 평가차원을 반영하는 총점이 될 수 있으며, (이상-현실 불일치도)+(기대-현실 불일치도)는 자기개념에 대한 불일치 정도를 반영하는 점수가 될 수 있다. 또한 (만족도)  $\times$  (중요도)는 자기영역에 대한 중요도를 고려한 만족도의 점수가 될 수 있듯이, 만족도는 가중치로 사용될 수 있다.

### 3) 내외 통제소재 측정도구

Rotter(1966)의 내외 통제척도(Internal-External Control Scale : I-E Scale)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번역, 수정하여 제작한 차재호 등 (1973)의 “내외통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는 2개의 답지, 즉 내적 통제문항과 외적통제 문항이 한 쌍으로 되어 있다. 이중 6개 문항은 허구척도로 나머지 15개 문항만을 채점하는데, 내적 문항에 표했을 때 1점씩 가산하여 0점에서 15점의 점수 분포를 가진다. 각 문항의 1) 과 2) 두 개의 진술문 중 2, 3, 4, 13,

16, 17, 20, 21번 문항은 2)항의 진술내용이 내적통제성을 나타내고 6, 7, 8, 10, 11, 14, 18 번 문항은 1)항의 진술내용이 내적통제성을 나타내며, 1, 5, 9, 12, 15, 19번 문항은 허구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 통제, 점수가 낮을 수록 외적통제로 분류했으며, 내-외통제 경향성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자 하였으므로, median을 기준으로 9점 이상을 내적통제집단, 8점 이하를 외적통제 집단으로 구분했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상태불안, 특성불안 점수를 종속변인으로하고, 자기개념의 각 영역들의 높음/낮음의 집단분류는 평균점수로부터 1 표준편차 이상과 이하로, 내-외통제 집단의 분류는 median을 기준으로 9점 이상을 내적통제집단으로, 8점 이하를 외적통제집단으로 분류했다.

통계프로그램으로 SPSS 10.0 을 사용해 자기개념이 높고 낮음에 따라 불안점수의 차이가 유의미한지와, 내-외 통제에 따라 상태불안점수와 특성불안점수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를 실시했으며, 통제소재의 내적/외적 집단과 자기개념의 각 영역별로 높음/낮음으로 분류한 집단의 불안에 대한 상호작용효과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했다.

### Ⅲ 결 과

자기개념과 통제소재, 불안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총 317부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 평균과 표준편차 및 차이검증, 이원변량분석 결과를 다음에 제시하였다.

#### 1.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표 1> 자기개념 영역 점수간의 상관계수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
| 1.외모       |        |        |        |        |        |        |        |        |        |        |        |        |        |
| 2.신체적 건강   | .206** |        |        |        |        |        |        |        |        |        |        |        |        |
| 3.가족의 재산   | .224** | .204** |        |        |        |        |        |        |        |        |        |        |        |
| 4.성격       | .382** | .232** | .249** |        |        |        |        |        |        |        |        |        |        |
| 5.자기조절능력   | .366** | .257** | .196** | .523** |        |        |        |        |        |        |        |        |        |
| 6.지적능력     | .423** | .161** | .264** | .496** | .487** |        |        |        |        |        |        |        |        |
| 7.대인관계능력   | .296** | .232** | .135*  | .771** | .448** | .368** |        |        |        |        |        |        |        |
| 8.지식수준     | .416** | .183** | .247** | .468** | .477** | .793** | .396** |        |        |        |        |        |        |
| 9.학업성적     | .334** | .092   | .123*  | .293** | .395** | .597** | .194** | .638** |        |        |        |        |        |
| 10.인생관및가치관 | .353** | .159** | .209** | .587** | .611** | .505** | .488** | .530** | .369** |        |        |        |        |
| 11.교우관계    | .204** | .295** | .220** | .692** | .443** | .311** | .819** | .299** | .123*  | .456** |        |        |        |
| 12.이성관계    | .297** | .146** | .302** | .443** | .290** | .271** | .404** | .248** | .169** | .301** | .353** |        |        |
| 13.가족관계    | .137** | .207** | .414** | .351** | .281** | .234** | .264** | .179** | .095   | .273** | .326** | .261** |        |
| 14.사회적 신분  | .378** | .243** | .458** | .442** | .375** | .408** | .358** | .414** | .310** | .443** | .403** | .356** | .348** |

\*  $p < .05$ , \*\*  $p < .01$

14개 영역점수들간의 상관을 구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이중 대인관계 능력과 교우관계( $r = .819$ ), 성격과 대인관계능력( $r = .771$ ), 지적능력과 지식수준( $r = .793$ )이 매우 높은 상관을 보인 반면, 신체건강과 학업성적( $r = .092$ ) 가족관계와 학업성적( $r = .095$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 2. 관련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표 2> 자기개념 영역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          | 외모   | 신체<br>건강 | 가족<br>재산 | 성격    | 자기조<br>절능력 | 지적<br>능력 | 대인관<br>계능력 | 지식<br>수준 | 학업<br>성적 | 인생관<br>및<br>가치관 | 교우<br>관계 | 이성<br>관계 | 가족<br>관계 | 사회적<br>신분 |
|----------|------|----------|----------|-------|------------|----------|------------|----------|----------|-----------------|----------|----------|----------|-----------|
| 평균       | -.34 | -2.79    | 2.80     | -1.61 | -1.53      | -1.69    | -3.87      | .91      | 1.32     | -1.50           | -6.40    | -.46     | -4.75    | -1.64     |
| 표준<br>편차 | 6.52 | 10.15    | 8.32     | 9.04  | 10.21      | 7.16     | 9.13       | 7.24     | 8.14     | 9/87            | 8.62     | 7.76     | 11.86    | 6.82      |

<표 2>에는 자기개념 영역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이 점수들은 [(부정평가도)+(이상-현실 불일치도)+(기대-현실 불일치도)+(고민정도)-(긍정평가도)-(만족도)-(개선가능정도)] × (중요도)의 공식에 의해서 산출되었으며, 이 점수의 부호나 크기는 특정한 자기영역에 대한 종합적 평가의 긍정성-부정성의 방향 및 그 크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부적부호는 자기개념이 높은 것을, 정적부호는 자기개념이 낮은 것을 나타낸다. 자기개념 영역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교우관계(평균 -6.40, 표준편차 8.62), 가족관계(평균 -4.75 표준편차 11.86), 대인관계능력(평균 -3.87 표준편차 9.13)을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가족의 재산(평균 2.80 표준편차 8.32) 학업성적(평균 1.32 표준편차 8.14), 지식수준(평균 .91 표준편차 7.24) 등을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lt;표 3&gt; 자기개념 영역별 점수와 관련척도의 상관계수

|           | 상태불안   | 특성불안   | 통제소재    |
|-----------|--------|--------|---------|
| 외모        | .095   | .171** | -.157** |
| 신체적 건강    | .100   | .158** | -.141*  |
| 가족의 재산    | .183** | .101   | -.142*  |
| 성격        | .232** | .223** | -.272** |
| 자기조절능력    | .189** | .265** | -.251** |
| 지적능력      | .093   | .175** | -.291*  |
| 대인관계능력    | .156** | .158** | -.241** |
| 지식수준      | .086   | .157** | -.306** |
| 학업성적      | .054   | .156** | -.249** |
| 인생관 및 가치관 | .290** | .286** | -.381** |
| 교우관계      | .195** | .205** | -.213** |
| 이성관계      | .222** | .145** | -.184** |
| 가족관계      | .210** | .240** | -.082   |
| 사회적 신분    | .171** | .165** | -.248** |

\*  $p < .05$  \*\*  $p < .01$ 

자기개념의 영역별 점수와 관련척도의 상관계수가 <표 3>에 나타나 있는데, 특성불안과 통제소재는 자기개념과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상태불안은 자기개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 영역이

다수 있었다. 이는 자기개념이 비교적 안정된 개인경향성을 의미하므로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상태불안과는 상관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표 4> 는 상태불안, 특성불안, 통제소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여준다.

<표 4> 상태불안, 특성불안, 통제소재의 평균과 표준편차

|      | N   | 평균    | 표준편차 |
|------|-----|-------|------|
| 상태불안 | 317 | 42.87 | 5.23 |
| 특성불안 | 317 | 50.11 | 4.06 |
| 통제소재 | 317 | 8.39  | 2.58 |

연구문제 1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자기개념이 높고 낮음에 따라 불안 점수에 차이가 나는가를 t-검증을 통해 알아보았다. <표 5> 에 그 결과가 보여지고 있듯 불안점수는 자기개념의 영역별로 전반적으로 자기개념이 낮을 때가 자기개념이 높을 때보다 불안점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족의 재산 영역을 제외하고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로서 연구문제 1의 자기개념이 낮을 때가 자기개념이 높을 때보다 불안점수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고 있으며, 자기개념이 정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겠다.

<표 5> 자기개념의 높고 낮음에 따른 영역별 불안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차이검증

| 자기개념 영역   | 불안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              | t값        |
|-----------|----------------|--------------|-----------|
|           | 자기개념이 높은 집단    | 자기개념이 낮은 집단  |           |
| 외모        | 48.88 (4.23)   | 50.96 (3.01) | -3.012**  |
| 신체적 건강    | 48.96 (3.65)   | 50.86 (3.76) | -3.055**  |
| 가족의 재산    | 49.12 (4.14)   | 50.43 (3.61) | -1.872    |
| 성격        | 48.93 (4.20)   | 51.32 (3.73) | -3.556**  |
| 자기조절능력    | 48.14 (3.41)   | 50.90 (3.44) | -4.247*** |
| 지적능력      | 48.81 (4.76)   | 50.75 (3.17) | -2.663**  |
| 대인관계능력    | 49.08 (3.79)   | 51.39 (3.51) | -4.036*** |
| 지식수준      | 49.07 (4.02)   | 50.72 (3.34) | -2.759**  |
| 학업성적      | 48.54 (3.63)   | 50.52 (3.62) | -2.958**  |
| 인생관 및 가치관 | 48.03 (3.78)   | 50.84 (3.83) | -4.476*** |
| 교우관계      | 49.28 (3.77)   | 51.65 (4.11) | -3.264**  |
| 이성관계      | 49.44 (3.62)   | 51.18 (3.76) | -2.512*   |
| 가족관계      | 48.22 (4.11)   | 51.43 (3.45) | -4.641*** |
| 사회적 신분    | 49.15 (3.93)   | 51.35 (2.72) | -3.991*** |

\*  $p < .05$  \*\*  $p < .01$  \*\*\*  $p < .001$ , ( )는 표준편차

&lt;표 6&gt; 내-외통제에 따른 상태불안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차이검증

| 집 단    | N   | 평 균   | 표준편차 | t 값   |
|--------|-----|-------|------|-------|
| 내적통제집단 | 152 | 42.66 | 4.92 | -.687 |
| 외적통제집단 | 165 | 43.07 | 5.51 |       |

&lt;표 7&gt; 내-외통제에 따른 특성불안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차이검증

| 집 단    | N   | 평 균   | 표준편차 | t 값     |
|--------|-----|-------|------|---------|
| 내적통제집단 | 152 | 49.61 | 3.89 | -2.105* |
| 외적통제집단 | 165 | 50.56 | 4.16 |         |

\*  $p < .05$ 

연구문제 2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내-외통제에 따른 상태불안점수와 특성불안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두 집단간 차이를 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가 <표 6>과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그 결과 외적통제 집단의 특성불안 수준이 내적통제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내-외 통제집단의 상태불안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로써 내-외 통제에 따라 불안점수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문제 2는 특성불안 점수에서만 지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연구문제 3 을 검증하기 위해 개선가능정도 평가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 보았고 이를 <표 8> 에 제시했다.

**<표 8> 자기개념의 영역별 개선가능정도 평가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 자기개념 영역   | 평 균  | 표준편차 |
|-----------|------|------|
| 외모        | 1.52 | .84  |
| 신체적 건강    | 1.80 | .78  |
| 가족의 재산    | 1.98 | .76  |
| 성격        | 1.85 | .81  |
| 자기조절능력    | 1.94 | .76  |
| 지적능력      | 2.27 | .71  |
| 대인관계능력    | 1.96 | .70  |
| 지식수준      | 2.21 | .69  |
| 학업성적      | 2.30 | .70  |
| 인생관 및 가치관 | 2.08 | .77  |
| 교우관계      | 1.97 | .73  |
| 이성관계      | 1.83 | .76  |
| 가족관계      | 1.72 | .85  |
| 사회적 신분    | 2.06 | .82  |

평균점수의 범위는 0~3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자기영역의 개선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함.

이 점수를 연구자의 임의대로 상위 점수에서 4개 영역, 하위점수에서 4개 영역을 나누어 개선가능성이 높다고 지각한 영역과 개선가능성이 낮다고 지각한 영역으로 구분했으며, 이것을 살펴보면 개선가능성이 높다고 지각한 자기개념의 영역은 학업 성적, 지적능력, 지식수준, 인생관 및 가치관 순으로 볼 수 있으며, 개선가능성이 낮다고 지각한 자기개념 영역은 외모, 가족관계, 신체적 건강, 이성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자기개념은 상태불안 보다는 특성불안과 관련이 되었다. 즉, 외적 통제 집단의 특성불안 수준이 내적통제 집단에 비해 높았으나, 상태불안 수준은 두 집단간 차이가 없었으므로 본 연구의 이원변량분석에서 종속변인은 특성불안에 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선가능성이 높다고 지각한 자기개념 영역의 자기개념이 낮을 때와 개선가능성이 낮다고 지각한 자기개념 영역의 자기개념이 낮을 때 통제소제에 따라 불안과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는지를 이원변량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 3. 가설검증을 위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연구문제 3 의 가설 1 을 검증하기 위하여, 개선가능성이 높다고 지각한 자기개념 영역들과 통제소제에 따라 불안과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는지를 이원변량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표 9> 에서 보여지듯 학업성적 영역에서는 자기개념의 주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자기개념과 통제소제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lt;표 9&gt; 학업성적 영역과 통제소재의 특성불안에 대한 변량분석표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값    |
|---------|------------|-----|---------|--------|
| 통제소재(A) | 15.314     | 1   | 15.314  | 1.158  |
| 학업성적(B) | 129.473    | 1   | 129.473 | 9.791* |
| A × B   | 2.172      | 1   | 2.172   | .164   |
| 오차      | 1520.733   | 115 | 13.224  |        |
| 합계      | 295069.000 | 119 |         |        |

\*  $p < .05$ 

지적능력 영역의 이원변량분석표가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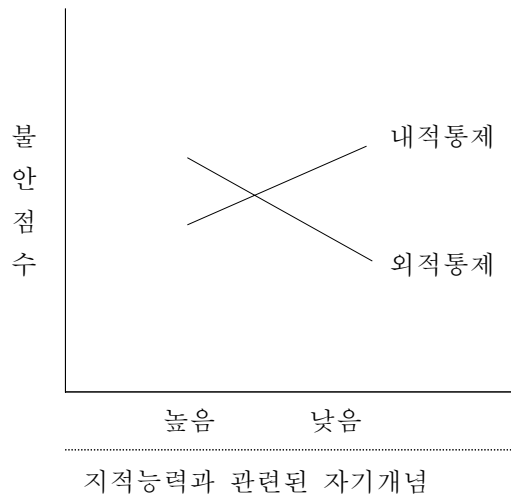
이 결과를 보면 지적능력 영역의 자기개념과 통제소재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그 방향성은 자기개념이 낮을 때 외적통제를 하는 경우가 내적통제를 하는 경우보다 불안이 감소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lt;표 10&gt; 지적능력 영역과 통제소재의 특성불안에 대한 이원변량분석표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값    |
|---------|------------|-----|---------|--------|
| 통제소재(A) | .838       | 1   | .838    | .054   |
| 지적능력(B) | 149.381    | 1   | 149.381 | 9.712* |
| A × B   | 67.022     | 1   | 67.022  | 4.357* |
| 오차      | 1938.105   | 126 | 15.382  |        |
| 합계      | 325629.000 | 130 |         |        |

\*  $p < .05$

그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그림 1> 지적능력 영역과 통제소재의 특성불안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

지식수준 영역의 이원변량분석 결과는 <표 11> 에 제시되어 있다.

지식수준 영역에서도 자기개념과 통제소재의 상호작용 효과가 보여지는데 그 방향성은 앞의 지적능력 영역과 마찬가지로 자기개념이 낮을 때 외적통제를 하는 경우 불안이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lt;표 11&gt; 지식수준 영역과 통제소재의 특성불안에 대한 이원변량분석표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값    |
|---------|------------|-----|--------|--------|
| 통제소재(A) | 3.858      | 1   | 3.858  | .288   |
| 지식수준(B) | 97.860     | 1   | 97.860 | 7.316* |
| A × B   | 45.552     | 1   | 45.552 | 3.405* |
| 오차      | 1993.106   | 149 | 13.377 |        |
| 합계      | 383648.000 | 153 |        |        |

\*  $p < .05$ 

이어서 인생관 및 가치관 영역의 이원변량분석표가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lt;표 12&gt; 인생관 및 가치관 영역과 통제소재의 특성불안에 대한 이원변량분석표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값       |
|-------------|------------|-----|---------|-----------|
| 통제소재(A)     | 42.436     | 1   | 42.436  | 3.079     |
| 인생관및 가치관(B) | 191.376    | 1   | 191.376 | 13.884*** |
| A × B       | 80.011     | 1   | 80.011  | 5.805*    |
| 오차          | 1971.029   | 143 | 13.783  |           |
| 합계          | 361437.000 | 147 |         |           |

\*  $p < .05$  \*\*\*  $p < .001$ 

이 결과에 따르면 인생관 및 가치관 영역에서도 자기개념과 통제소재의 상호작

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데, 그 방향성에서 자기개념이 낮을 때 외적통제를 하는 것이 내적통제를 하는 것보다 불안수준이 감소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제시된 것에서 보이듯 자신의 노력으로 개선가능성이 높다고 지각한 자기개념 영역에서 외적통제를 하는 경우 불안수준이 낮아짐을 보인 것은 본 연구자의 가설1과 반대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문제 3의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개선가능성이 낮다고 지각한 자기개념 영역인 외모, 가족관계, 이성관계의 이원변량 분석을 해 보았다.

외모영역과 통제소재의 이원변량분석 결과가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이를 보면 외모영역의 자기개념과 통제소재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3> 외모영역과 통제소재의 특성불안에 대한 이원변량분석표**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값    |
|---------|------------|-----|---------|--------|
| 통제소재(A) | 1.039      | 1   | 1.039   | .076   |
| 외 모(B)  | 113.586    | 1   | 113.586 | 8.292* |
| A × B   | 1.408      | 1   | 1.408   | .103   |
| 오차      | 1479.416   | 108 | 13.698  |        |
| 합계      | 280705.000 | 112 |         |        |

\*  $p < .05$

이어서 가족관계영역과 통제소재의 이원변량분석표를 <표 14>에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결과에서도 외모영역과 마찬가지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가족관계 영역의 자기개념과 통제소재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이성관계 영역의 이원변량분석표는 <표 15>에 제시되어 있다.

&lt;표 14&gt; 가족관계영역과 통제소재의 특성불안에 대한 이원변량분석표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값       |
|---------|------------|-----|---------|-----------|
| 통제소재(A) | .230       | 1   | .230    | .015      |
| 가족관계(B) | 290.250    | 1   | 250.250 | 19.256*** |
| A × B   | 4.854      | 1   | 4.854   | .322      |
| 오차      | 1763.588   | 117 | 15.073  |           |
| 합계      | 298796.000 | 121 |         |           |

\*  $p < .05$ , \*\*\*  $p < .001$ 

이성관계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제소재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은 보이지 않았다.

&lt;표 15&gt; 이성관계영역과 통제소재의 특성불안에 대한 이원변량분석표

| 변량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값    |
|---------|------------|-----|--------|--------|
| 통제소재(A) | 45.512     | 1   | 45.512 | 3.508  |
| 이성관계(B) | 59.395     | 1   | 59.395 | 4.480* |
| A × B   | 20.763     | 1   | 20.763 | 1.566  |
| 오차      | 1458.521   | 110 | 15.073 |        |
| 합계      | 290123.000 | 113 |        |        |

\*  $p < .05$ 

연구문제 3의 가설 2에서는 자신의 노력으로 개선가능성이 낮다고 지각한 영역의 자기개념이 낮을 때는 외적통제가 내적통제보다 불안의 수준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보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자기개념과 통제소재 및 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들에서 자기개념과 불안, 통제소재와 불안, 자기개념과 통제소재로 각기 연구된 결과를 토대로 자기개념의 전체영역과 통제소재, 불안과의 관련성을 밝히고 불안에 완충작용을 하는 기제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개념 영역 점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대인관계능력과 교우관계( $r = .819$ ), 성격과 대인관계능력( $r = .771$ ), 지적능력과 지식수준( $r = .793$ ) 이 매우 높은 상관을 보인 반면, 신체건강과 학업성적( $r = .092$ ), 가족관계와 학업성적( $r = .095$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둘째, 자기개념 영역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교우관계(평균  $-6.40$ , 표준편차  $8.62$ ), 가족관계(평균  $-4.75$  표준편차  $11.86$ ), 대인관계능력(평균  $-3.87$  표준편차  $9.13$ )을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가족의 재산(평균  $2.80$  표준편차  $8.32$ ) 학업성적(평균  $1.32$  표준편차  $8.14$ ), 지식수준(평균  $.91$  표준편차  $7.24$ ) 등을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자기개념의 영역별 점수와 통제소재, 상태불안, 특성불안 척도와의 상관에서는 특성불안과 통제소재가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으나 상태불안과의 상관이 비교적 적은 것은, 자기개념이 비교적 안정된 개인경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상태불안과는 상관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넷째, 통제소재에 따른 특성불안의 평균점수를 보면, 외적통제집단의 특성불안 평균( $50.56$ )이 내적통제집단의 평균( $49.61$ )보다 높았으며 두 집단간의 특성불안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314) = -2.105$   $p < .05$ ). 상태불안 수준도 외적통제 집단의

평균(43.07)이 내적통제 집단(42.66)보다 높았으나 두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에서 자기개념의 각 영역별로 자기개념의 높고 낮음에 따라 불안점수의 차이가 날 것이라는 가설은 자기개념 영역에서 가족의 재산 영역을 제외하고는 자기개념이 낮을 때가 자기개념이 높을 때보다 불안점수의 수준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지지되었고 이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면이다.

연구문제 2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 외적통제 집단의 특성불안 수준이 내적통제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내-외 통제집단의 상태불안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로써 내-외 통제에 따라 불안점수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문제 2는 특성불안에서만 지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연구문제 3의 내-외 통제가 불안을 감소시키는 자기개념 영역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자기개념의 영역을 자신의 노력으로 개선가능성이 높다고 지각한 영역과 개선가능성이 낮다고 지각한 영역으로 구분해 보았다. 개선가능정도 평가점수에서 상위 4개 영역, 하위 4개 영역을 선별하여 개선가능성이 높은 영역과 개선가능성이 낮은 영역으로 구분했다. 개선가능성이 높게 지각된 자기개념의 영역은 학업성적, 지적능력, 지식수준, 인생관 및 가치관 순이었으며, 개선가능성이 낮게 지각된 자기개념 영역은 외모, 가족관계, 신체적 건강, 이성관계 순이었다.

이에 따라 개선가능성이 높고 낮은 영역과 내-외 통제집단의 특성불안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개선가능성이 높다고 지각한 자기개념 영역인 지적능력 영역에서는 통제소재와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F(1,126)=4.357, p<.05$  하며, 그 방향성은 자기개념이 낮을 때 외적통제를 하는 경우가 내적통제를 하는 경우보다 불안

이 감소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지식수준 영역에서도 자기개념과 통제소재의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F(1,149)=3.345, p<.05$  하며, 그 방향성 역시 자기개념이 낮을 때 외적통제를 하는 경우 불안이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인생관 및 가치관 영역에서도 통제소재와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F(1,143)=5.805, p<.05$  했으며, 그 방향성은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기개념이 낮을 경우 외적통제를 하는 것이 내적통제를 하는 것보다 불안이 감소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개선가능성이 낮다고 지각한 자기개념영역인 외모, 가족관계, 이성관계영역과 통제소재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세 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방향성은 개선가능성이 낮다고 지각한 영역의 자기개념이 낮을 때 내적통제를 할 경우 불안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구문제 3의 가설 1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개선가능성이 높다고 지각한 영역의 자기개념이 낮을 때는 내적통제자가 외적통제자보다 불안의 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연구자의 가설과는 반대로 외적통제자가 내적통제자보다 불안의 수준이 낮은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외적통제유형의 종류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외적통제에는 ‘일치외재자(congruent externals)’와 ‘방어외재자(defensive externals)’의 두 종류가 있다는 사변(思辨)이 있어 왔다(Phares, 1978, 1979; Rotter, 1966). 그중 ‘일치외재자’란 현실적 이유 때문에 세상을 외적으로 통제된 것으로 지각하게 된 사람들이다. 아마도 그들은 출세의 가능성이 희박한 박탈된 사회경제적 조건들하에서 키워졌을 것이며, 혹은 가정에서의 어린 시절이 혼동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을 수도 있다. 이유야 무엇이든간에 그들의 내-외통제 신념들은 그들이 체험한 현

실과 가깝게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방어외재자’란 예기된 실패에 대한 방어로서 외재적 신념을 신봉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성공의 예상이 낮으며, 잠재적 및 현실적 실패들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세력들에 기인하는 것으로 봄으로써 합리화한다.

몇 가지 연구들이 방어외재자와 일치외재자를 서로 구별하는 것이 유용함을 지지해왔다. 예를 들어, Hochreich(1974)는 일치외재자나 내재자 남성들보다도 방어외재자 남성들이 성취상황에서 실패한 것으로 기술된 사람들 스스로를 덜 탓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Lloyd 와 Chang (1979)은 방어외재자들이 스스로의 성공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만 실패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반면, 일치외재자들은 그러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Hochreich(1974)의 결과처럼 이 결과도 방어외재자들이 스스로의 실패에 대해 책임지기를 분명히 꺼린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방어적 외적 통제(defensive external)는 성취에 대해 가치를 두고 원하고 있지만 성공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낮다.

또 하나는 Kuyper 의 연구에서 외적통제자가 필요할 때 전위(displacement)나 투사(projection)의 방어기제를 적절히 사용하여 적응해 나가고 있다(Haan, 1982)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Haan(1982)은 통제소재에 관한 일반적 개념에 한계점을 제기했는데 그에 의하면 비록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많은 경우의 부정적 사건에 대해 모두가 그들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는 점, 통제소재는 너무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대응기전의 측정도구일 뿐으로 좀 더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적통제소재자가 더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개선가능한 자기개념 영역이 부정적으로 평가될 경우 단순히 내적통제를 함으로 불안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개선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개념이 낮을 때

내적통제를 하면 자신의 노력부족이나 무능으로 여겨져 이중으로 불안이 높아지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방어외재자’의 역할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을 통해 불안을 낮추는 자기보호기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러한 보호기제가 자신의 노력으로 개선가능성이 높다고 지각된 자기개념 영역들에서 나타나는 현상들로 볼 때, 이는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잘 할 수 있다고 인식한 것과 실천이나 행동간의 괴리가 존재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다.

가설 2 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나 내적통제가 불안이 낮아지는 방향성을 보이는 것은 개선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지각된 자기개념 영역인 외모, 가족관계, 신체적 건강, 이성관계 등이 외적 통제를 하면 일시적인 불안을 감소시키는 하겠지만, 궁극적인 해결방법은 아닐 것이며, 자존감 저하와 무기력을 불러올 수도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전략이 불안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중 신체적 건강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면과 후천적인 노력이 반반 정도인 자기개념 영역으로 볼 수 있으며, 가족관계는 자신이 선택한 영역이 아니긴 하나 자신과 분리가 쉽지 않은 영역으로 내적 통제를 하는 것이 외적통제를 하는 것보다 자존감 유지와 불안수준이 낮아지는 것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자기보고식 설문지 방법의 한계이다. 자기개념이라는 다차원적이고 다면적인 변인을 측정하는데에 자기보고식 질문지는 제대로 그 개념을 측정하는가에 한계를 지니게 마련일 것이다. 둘째로 성비(性比)의 편중으로 남녀 응답자의 자기개념을 비교해 볼 수가 없었으며,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는 여학생들의 자기개념 성향이 강할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는 대학생들에 맞게 제작된 질문지여서 이 연구결과는 대학생들의 자기개념을 측정한 것에 제한된다는 점이다. 넷째는 자기개념 측정 질문지의 채점체계나 표준화(권석만, 1996 b)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는 개선가능성이 높다고 지각한 영역과 낮다고 지각한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본다. 추후연구에서는 충분한 피험자수를 확보하거나 개선가

능 정도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질문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끝으로 본 연구는 자기개념과 불안 간의 관계에 통제소재가 매개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시도해 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내적통제에 비해 부정적인 변인으로만 간주되어온 외적통제가 상호작용을 통해 기능적인 역할이 가능함을 밝힌 것도 의의가 있다 하겠다. 권희경(1991)의 연구에서도 장의존성과 외적통제성을 개별적으로 볼 때 열세의 차원으로 간주되었다 할지라도 두 측면의 상호작용은 특정영역에서 보다 효율적인 기능을 이끌 수 있게 됨을 밝힌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선행연구들이 자기개념의 일부분만을 연구하거나 피험자가 여러 층이었던 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개념 영역전체와 관련변인들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 불안에 완충작용을 하는 기제를 알아 보았다는 것도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권석만(1996 a). 우울과 불안의 관계: 유발 생활사건과 인지내용에 있어서의 공통점과 차이점. 심리과학, 5, 13-38.
- 권석만(1996 b). 자기개념의 인지적 구조와 측정도구의 개발: 서울대학생 표집의 자기개념특성. 학생연구, 31 (1), 11.
- 권희경(1991). 장 의존성과 내외 통제성의 일치여부와 자아개념.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선옥(1981). 특성불안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원중(1984). 진로의식 성숙과 사회,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윤희(2001). 걱정이 많은 사람들의 자기개념과 자기복잡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호(1999). 대학생의 자기개념을 통해 본 사회불안과 우울의 비교.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철수(1974). 내-외통제 성격변인의 구성타당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석기(1984). 내-외통제적 성격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선희(1991). 내외통제성과 적응기제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백기청(1989). 스트레스 요인으로서의 생활사건과 통제소재 및 불안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성금자(1993). 국민학교 아동의 불안과 자아개념간의 상관관계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동주(1995). 자아개념과 불안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인섭(1989). 인간심리와 자아개념. 서울: 양서원.
- 송혜수(1983). 사태불안을 일으키는 요인으로서의 특질불안과 통제유형의 역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원호택, 권석만, 박현순, 신현균 (1996). 불안장애 환자가 나타내는 사고내용의 특성. 심리과학, 5, 1, 1-12.
- 이상희 (1993). 내-외향성 및 통제소재와 불안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재식(1990). 자기개념 형태에 따른 귀인양식과 우울, 불안특질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희(1998). 대학생의 심리적 변인과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 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현민, 노명래 (1991). 자아개념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조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114-125.
- 정은주 (1981). 내외통제성과 관련변인간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채기 (1991). 자아개념, 자아정체감 및 내-외통제성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승애(1988). 내-외 통제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유형의 스트레스 완충효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허동기(1989).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내외 통제성과 자아개념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rcher, R. P. (1979). Relationships between locus of control and anxie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3, 617-626.
- Archer, R. P., & Kutash, K. (1982). Anxiety response to psychological feedback among psychiatric patients. *Psychological Reports*, 50, 547-551.
- Burnett, T. J. (1981).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as a moderator of fear appeal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6, 390-393.
- Cauce, A. M., Hannan, K. & Sargeant, M. (1992).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locus of control during early adolescence: interactive effec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0,(6), 787(12).
- Cellini, J. V., & Kantorowski, L. A. (1982).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New normative data. *Psychological Reports*, 51, 231-235.
- Crump, B. R., Hickson, J. H., & Laman, A. (1985). Relationship of locus of control to achievement and self-concept in education majors. *Psychological Reports*, 57, 1055-1060.
- Denny, J. P. (1966). Effect of anxiety and intelligence on concept form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72. 596-602.
- Donovan, D. M., Smith, L., Paige, A. B., & O'Leary, M. R. (1975) Relationships among locus of control, self-concept and anxiet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 682-684.
- Epstein, S. (1973). The self-concept revisited : Or a theory of a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May, 404-416.
- Felton, B., Kahana, E. (1974). Adjustment and situationally bound locus of control among institutionalized aged. *Journal of Gerontology*, 29, 295-301.

- Fink, D., Johnson, M. L., Kennedy, C. & Porter, C. (2001). Correlation Between State Anxiety and Locus of Control.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March 72, (1), pA-87.
- Gadzella, B. M., Williamson, J. D., & Ginther, D. W. (1985). Correlations of self-concept with locus of control and academic performance. *Perceptual & Motor Skills*, 61, 639-645.
- Goertzel, L; Goertzel, T. (1991). Health locus of control, self-concept, and anxiety in pediatric cancer patients. *Psychological Reports*, April, 68, n2, p531(10).
- Haan, N. (1982). *The Assessment of Coping, Defence, and Stress. Handbook of Stress, edited by Goldberger*. Breznitz, N. Y, The Free Press: 254-269.
- Harrow, M, & Ferrante, A. (1969). Locus of control in psychiatric pati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 582-589.
-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 A theory relating self to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 319-340.
- Hochreich, D. J. (1972). Internal-External control and reaction to the My Lai court martial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 319-325.
- Hochreich, D. J. (1974). Defensive externality and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42, 543-557.
- Ingram, R. E. (1984). Toward an information-processing analysis of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8, 443-478.
- Johnson, J. H. & Sarason, I. G. (1978). Life Stress, depression and anxiety; Internal- Externl control as a moderator variab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22, 205-208.

- Katkin, E. S. (1965). Relationship between manifest anxiety and two indices autonomic response to 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 324-333.
- Kendall, P. C. (1978). Anxiety: state, trait situ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280-287.
- King, P. R., & Endler, N. S. (1990). The Trate Anxiety-Perception Score: A Composite Predictor for State Anxie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No.4. 679-684.
- Kobasa, S. C. (1979). Stressful life events, personality and health : An inquiry into hard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11.
- Lefcourt, H. M. (1982). *Locus of control :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2nd ed.). Hillsdale, N. J. : Erlbaum.
- Lloyd, C., & Chang, A. F. (1979). The usefulness of distinguishing between a defensive and nondefensive external locus of control.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3, 316-325.
- Maher, B. A. (1966). *Principle of psychology : An experimental approach*. New York : McGraw-Hill.
- Markus, H. (1990). Unsolved issues of self-representa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241-253.
- Marsh, H. W., Relich, J. D., & Smith, I. D. (1983). Self-concept: The construct validity of interpretations based upon the SDQ.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173-187.

- Phares, E. J. (1957). Expectancy changes in skill and chance expectancie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4*, 399-342.
- Phares, E. J., & Wilson, K. G. (1972). Role of outcome severity, situational ambiguity, and internal-external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40*, 392-406.
- Phares, E. J. (1978). Locus of control. In H. London and J. E. Exner(Eds), *Dimensions of personality*. New York : Wiley-Interscience.
- Phares, E. J. (1984). Introduction to Personality. 성격 심리학. 홍숙기 역 (1987). 서울: 박영사.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a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1, Whole No. 609).
- Rotter, J. B. (1975). Some problem and misconceptions related to the construct of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56-67.
- Sandler, I. N., & Lakey, B. (1982). Locus of control as a stress moderator : The role of control perceptions and social suppor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0*, 65-80.
- Schneider, S. K. (1988). The effect of personality variables as stress buffers. *Journal of Psychological Type, 14*, 51-56.
- Segal, Z. V. (1988). Appraisal of the self-schema construct in cognitive models of depression. *Psychological Bulletin, 103*, 147-162.
- Shavelson, R. J., & Bolus, R. (1982). Self-concept : The interplay of theory and method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4*, 3-17.
- Sosis, R. H. (1974). Internal-external control and the perception of responsibility

- of another for an accid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0, 393-399
- Spielberger, C. D., & Smith, L. H.(1966). Anxiety(drive), stress, and serial-position effects in serial-verbal learning.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72, 589-595.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e, R. E. (1970).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Manual*. Palo Alto, Californi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Spielberger, C. D.(1972). Anxiety as an emotional state. In C. D. Spielberger(Ed), *Anxiety :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Vol. 1. New York: Academic Press. pp. 23-49.
- Strickland, B. R. (1977). Internal-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In T. Bass(Ed.), *Personality variables in social behavior*. Hillsdale, N. J., : Erlbaum.
- Wolk, S., & Kurtz, J. (1975). Positive adjustment and involvement during aging and expectancy for internal contro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173-178.
- Wylie, R. C. (1961). *The self-concept: A critical survey of pertinent research literature*. Lincoln : University of Nebraska.

## 부 록

부록 1. 상태불안 질문지(STAI-S)

부록 2. 특성불안 질문지(STAI-T)

부록 3. 다면적 자기개념검사 질문지(MSCI)

부록 4. 내외통제척도 질문지(LOC)

## 《 STAI-S 》

다음 문장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각 문장을 잘 읽으시고, 당신이 “ 바로 지금 이 순간 ” 에 느끼고 있는  
자기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정도에 따라 우측에 있는 숫자 중  
 하나를 골라 O 표 해 주십시오.  
 한 문장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말고 하나도 빠짐없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전혀<br>아니다 | 조금<br>그렇다 | 보통으로<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나는 마음이 차분하다. ....            | 1 | 2         | 3         | 4           |           |
| 2. 나는 마음이 든든하다. ....            | 1 | 2         | 3         | 4           |           |
| 3. 나는 긴장되어 있다. ....             | 1 | 2         | 3         | 4           |           |
| 4. 나는 후회스럽고 서운하다.....           | 1 | 2         | 3         | 4           |           |
| 5. 나는 마음이 편하다. ....             | 1 | 2         | 3         | 4           |           |
| 6. 나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    | 1 | 2         | 3         | 4           |           |
| 7. 나는 앞으로 불행이 있을까봐 걱정하고 있다..... | 1 | 2         | 3         | 4           |           |
| 8. 나는 마음이 놓인다.....              | 1 | 2         | 3         | 4           |           |
| 9. 나는 불안하다.....                 | 1 | 2         | 3         | 4           |           |
| 10. 나는 편안하게 느낀다.....            | 1 | 2         | 3         | 4           |           |
| 11. 나는 자신감이 있다.....             | 1 | 2         | 3         | 4           |           |
| 12. 나는 짜증스럽다.....               | 1 | 2         | 3         | 4           |           |
| 13. 나는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 1 | 2         | 3         | 4           |           |
| 14. 나는 극도로 긴장되어 있다.....         | 1 | 2         | 3         | 4           |           |
| 15. 내 마음은 긴장이 풀려 푸근하다.....      | 1 | 2         | 3         | 4           |           |
| 16. 나는 만족스럽다.....               | 1 | 2         | 3         | 4           |           |
| 17. 나는 걱정하고 있다.....             | 1 | 2         | 3         | 4           |           |
| 18. 나는 흥분되어 어쩔 줄 모르겠다.....      | 1 | 2         | 3         | 4           |           |
| 19. 나는 즐겁다.....                 | 1 | 2         | 3         | 4           |           |
| 20. 나는 기분이 좋다.....              | 1 | 2         | 3         | 4           |           |

## 《 STAI-T 》

다음 문장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각 문장을 잘 읽으시고, 당신이 일상적으로 흔히 느끼고 있는 “자신의 성격적인  
 성향을 가장 잘 나타내는 정도에 따라 우측에 있는 숫자 중 하나를 골라 0 표  
 해 주십시오.  
 한 문장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말고 하나도 빠짐없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전혀<br>아니다 | 때때로<br>그렇다 | 자주<br>그렇다 | 거의 언제나<br>그렇다 |
|---------------------------------------------------------|-----------|------------|-----------|---------------|
| 21. 나는 기분이 좋다.....                                      | 1         | 2          | 3         | 4             |
| 22. 나는 쉽게 피로해진다.....                                    | 1         | 2          | 3         | 4             |
| 23. 나는 울고 싶은 심정이다.....                                  | 1         | 2          | 3         | 4             |
| 24.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했으면 한다.....                           | 1         | 2          | 3         | 4             |
| 25. 나는 마음을 빨리 정하지 못해서 실패를 한다.....                       | 1         | 2          | 3         | 4             |
| 26. 나는 마음이 놓인다.....                                     | 1         | 2          | 3         | 4             |
| 27. 나는 차분하고 침착하다.....                                   | 1         | 2          | 3         | 4             |
| 28. 나는 너무 많은 어려운 문제가 밀어닥쳐서 극복할 수<br>없을 것 같다.....        | 1         | 2          | 3         | 4             |
| 29. 나는 하찮은 일에 너무 걱정을 한다.....                            | 1         | 2          | 3         | 4             |
| 30. 나는 행복하다.....                                        | 1         | 2          | 3         | 4             |
| 31. 나는 무슨 일이건 힘들게 생각한다.....                             | 1         | 2          | 3         | 4             |
| 32. 나는 자신감이 부족하다.....                                   | 1         | 2          | 3         | 4             |
| 33. 나는 마음이 든든하다. ....                                   | 1         | 2          | 3         | 4             |
| 34. 나는 위기나 어려움을 피하려고 애쓴다.....                           | 1         | 2          | 3         | 4             |
| 35. 나는 울적하다.....                                        | 1         | 2          | 3         | 4             |
| 36. 나는 만족스럽다.....                                       | 1         | 2          | 3         | 4             |
| 37. 사소한 생각이 나를 괴롭힌다.....                                | 1         | 2          | 3         | 4             |
| 38. 나는 실망을 지나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br>머리속에서 지워버릴수가 없다.....  | 1         | 2          | 3         | 4             |
| 39. 나는 착실한 사람이다.....                                    | 1         | 2          | 3         | 4             |
| 40. 나는 요즘의 걱정거리나 관심거리를 생각만 하면<br>긴장되거나 어찌할 바를 모른다 ..... | 1         | 2          | 3         | 4             |

## 《 M S C I 》

아래의 내용은 당신이 자기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잘 읽고 당신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에 0 표 하여 주십시오.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0           | 1         | 2          | 3         |
| 전혀<br>그렇지않다 | 약간<br>그렇다 | 상당히<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0            | 1         | 2          | 3         |
|-------------------------------------|--------------|-----------|------------|-----------|
|                                     | 전혀<br>그렇지 않다 | 약간<br>그렇다 | 상당히<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1.나는 주변 동료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이다.....  | 0            | 1         | 2          | 3         |
| 2.나는 체력이 약하다.....                   | 0            | 1         | 2          | 3         |
| 3.나는 사람을 잘 사귀지 못한다.....             | 0            | 1         | 2          | 3         |
| 4.나는 주변 동료들에 비해 아는 게 많은 편이다.....    | 0            | 1         | 2          | 3         |
| 5.나는 나의 성격에 만족한다.....               | 0            | 1         | 2          | 3         |
| 6.나는 내 자신(감정이나 충동)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 | 0            | 1         | 2          | 3         |
| 7.나는 주변 동료들에 비해 교우관계가 원만한 편이다.....  | 0            | 1         | 2          | 3         |
| 8.우리 집은 화목하지 못하다.....               | 0            | 1         | 2          | 3         |
| 9.나는 나의 외모에 만족한다.....               | 0            | 1         | 2          | 3         |
| 10.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 | 0            | 1         | 2          | 3         |

|                                        |   | 전혀<br>그렇지 않다 | 약간<br>그렇다 | 상당히<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1.나는 주변 동료들에 비해 학업성적이 우수한 편이다.....    | 0 | 1            | 2         | 3          |           |
| 12.나는 머리가 나쁘다.....                     | 0 | 1            | 2         | 3          |           |
| 13.나는 이성관계 문제로 고민을 한다.....             | 0 | 1            | 2         | 3          |           |
| 14.나는 나의 사회적 신분에 몇몇하지 못하다.....         | 0 | 1            | 2         | 3          |           |
| 15.나는 신체적 건강 문제로 고민을 한다.....           | 0 | 1            | 2         | 3          |           |
| 16.나는 지식(상식과 전공지식)이 부족하다.....          | 0 | 1            | 2         | 3          |           |
| 17.나의 외모는 부모의 기대와 거리가 멀다.....          | 0 | 1            | 2         | 3          |           |
| 18.나는 친구들과 잘 지내지 못한다.....              | 0 | 1            | 2         | 3          |           |
| 19.나는 주변 동료들에 비해 신체적으로 건강한 편이다.....    | 0 | 1            | 2         | 3          |           |
| 20.나의 지적 능력은 부모의 기대와 거리가 멀다.....       | 0 | 1            | 2         | 3          |           |
| 21.나(또는 우리 집)는 가난하다.....               | 0 | 1            | 2         | 3          |           |
| 22.나의 사회적 신분은 나의 노력에 따라 나아질 수 있다.....  | 0 | 1            | 2         | 3          |           |
| 23.나는 나의 신체적 건강과 체력에 만족한다.....         | 0 | 1            | 2         | 3          |           |
| 24.나의 행복에 있어서 교우관계는 중요하다.....          | 0 | 1            | 2         | 3          |           |
| 25.나의 성격은 나의 이상과 거리가 멀다.....           | 0 | 1            | 2         | 3          |           |
| 26.나는 학업성적 문제로 고민을 한다.....             | 0 | 1            | 2         | 3          |           |
| 27.나의 지적 능력은 나의 노력에 따라 나아질 수 있다.....   | 0 | 1            | 2         | 3          |           |
| 28.나는 나의 교우관계에 만족한다.....               | 0 | 1            | 2         | 3          |           |
| 29.나의 경제적 상태는 나의 이상과 거리가 멀다.....       | 0 | 1            | 2         | 3          |           |
| 30.나는 주변 동료들에 비해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한 편이다..... | 0 | 1            | 2         | 3          |           |
| 31.나의 성격은 부모의 기대와 거리가 멀다.....          | 0 | 1            | 2         | 3          |           |
| 32.나는 신체적 매력이 없다.....                  | 0 | 1            | 2         | 3          |           |
| 33.나의 행복에 있어서 지식은 중요하다.....            | 0 | 1            | 2         | 3          |           |
| 34.나의 사회적 신분은 부모의 기대와 거리가 멀다.....      | 0 | 1            | 2         | 3          |           |
| 35.나의 외모는 나의 노력에 따라 나아질 수 있다.....      | 0 | 1            | 2         | 3          |           |
| 36.나의 신체적 건강과 체력은 부모의 기대와 거리가 멀다.....  | 0 | 1            | 2         | 3          |           |
| 37.나의 교우관계는 나의 노력에 따라 나아질 수 있다.....    | 0 | 1            | 2         | 3          |           |
| 38.나는 주변 동료들에 비해 사회적 신분에 만족하는 편이다..... | 0 | 1            | 2         | 3          |           |
| 39.나의 행복에 있어서 학업성적은 중요하다.....          | 0 | 1            | 2         | 3          |           |
| 40.우리 집의 가족관계는 나의 이상과 거리가 멀다.....      | 0 | 1            | 2         | 3          |           |

|                                            |   | 전혀<br>그렇지 않다 | 약간<br>그렇다 | 상당히<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41.나는 경제적 문제(돈 문제)로 고민을 한다.....0           | 1 | 2            | 3         |            |           |
| 42.나는 나의 학업성적에 만족한다.....0                  | 1 | 2            | 3         |            |           |
| 43.나는 주변 동료들에 비해 외모가 잘 생긴 편이다.....0        | 1 | 2            | 3         |            |           |
| 44.나는 가족관계 문제로 고민을 한다.....0                | 1 | 2            | 3         |            |           |
| 45.나의 행복에 있어서 사회적 신분은 중요하다.....0           | 1 | 2            | 3         |            |           |
| 46.나의 경제적 상태는 나의 노력에 따라 나아질 수 있다.....0     | 1 | 2            | 3         |            |           |
| 47.나의 대인관계 능력은 나의 이상과 거리가 멀다.....0         | 1 | 2            | 3         |            |           |
| 48.나는 인생관과 가치관의 문제로 고민을 한다.....0           | 1 | 2            | 3         |            |           |
| 49.나의 지적능력은 나의 이상과 거리가 멀다.....0            | 1 | 2            | 3         |            |           |
| 50.나는 나의 지식수준에 만족한다.....0                  | 1 | 2            | 3         |            |           |
| 51.나는 이성(異性)과 잘 사귀지 못한다.....0              | 1 | 2            | 3         |            |           |
| 52.나의 신체적 건강과 체력은 나의 노력에 따라 나아질 수 있다.....0 | 1 | 2            | 3         |            |           |
| 53.나의 행복에 있어서 가족간의 화목은 중요하다.....0          | 1 | 2            | 3         |            |           |
| 54.나의 학업성적은 나의 노력에 따라 나아질 수 있다.....0       | 1 | 2            | 3         |            |           |
| 55.나의 신체적 건강과 체력은 나의 이상과 거리가 멀다.....0      | 1 | 2            | 3         |            |           |
| 56.나는 외모 때문에 고민을 한다.....0                  | 1 | 2            | 3         |            |           |
| 57.나의 행복에 있어서 이성관계는 중요하다.....0             | 1 | 2            | 3         |            |           |
| 58.나는 나의 사회적 신분에 만족한다.....0                | 1 | 2            | 3         |            |           |
| 59.나의 대인관계 능력은 나의 노력에 따라 나아질 수 있다.....0    | 1 | 2            | 3         |            |           |
| 60.나의 행복에 있어서 인생관과 가치관의 정립은 중요하다.....0     | 1 | 2            | 3         |            |           |
| 61.나의 성격은 나의 노력에 따라 좋아질 수 있다.....0         | 1 | 2            | 3         |            |           |
| 62.나의 자기조절 능력은 부모의 기대와 거리가 멀다.....0        | 1 | 2            | 3         |            |           |
| 63.나는 나의 이성관계에 만족한다.....0                  | 1 | 2            | 3         |            |           |
| 64.나는 성격 문제로 고민을 한다.....0                  | 1 | 2            | 3         |            |           |
| 65.나의 외모는 나의 이상과 거리가 멀다.....0              | 1 | 2            | 3         |            |           |
| 66.나의 행복에 있어서 지적 능력은 중요하다.....0            | 1 | 2            | 3         |            |           |
| 67.나의 이성관계는 나의 노력에 따라 나아질 수 있다.....0       | 1 | 2            | 3         |            |           |
| 68.나의 행복에 있어서 신체적 건강과 체력은 중요하다.....0       | 1 | 2            | 3         |            |           |
| 69.나는 내 자신을 잘 조절하지 못해 고민이다.....0           | 1 | 2            | 3         |            |           |
| 70.나의 교우관계는 나의 이상과 거리가 멀다.....0            | 1 | 2            | 3         |            |           |

|                                             |   | 전혀<br>그렇지 않다 | 약간<br>그렇다 | 상당히<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71.나의 지식수준은 나의 노력에 따라 나아질 수 있다.....0        | 0 | 1            | 2         | 3          |           |
| 72.나는 나의 지적 능력에 만족한다.....0                  | 1 | 2            | 3         |            |           |
| 73.가족에 대한 나의 태도는 부모의 기대와 거리가 멀다.....0       | 1 | 2            | 3         |            |           |
| 74.나는 학점이 나쁘다.....0                         | 1 | 2            | 3         |            |           |
| 75.나는 지식이 부족해서 고민을 한다.....0                 | 1 | 2            | 3         |            |           |
| 76.나의 교우관계는 부모의 기대와 거리가 멀다.....0            | 1 | 2            | 3         |            |           |
| 77.나는 주변 동료들에 비해 지적능력이 우수한 편이다.....0        | 1 | 2            | 3         |            |           |
| 78.나의 학업성적은 나의 이상과 거리가 멀다.....0             | 1 | 2            | 3         |            |           |
| 79.나의 자기조절 능력은 나의 노력에 따라 나아질 수 있다.....0     | 1 | 2            | 3         |            |           |
| 80.나는 주변 동료들에 비해 인생관과 가치관이 잘 정립되어 있는 편이다.0  | 1 | 2            | 3         |            |           |
| 81.나는 나의 대인관계 능력에 만족한다.....0                | 1 | 2            | 3         |            |           |
| 82.나의 학업성적은 부모의 기대와 거리가 멀다.....0            | 1 | 2            | 3         |            |           |
| 83.나의 이성관계는 나의 이상과 거리가 멀다.....0             | 1 | 2            | 3         |            |           |
| 84.나는 대인관계 능력이 부족해서 고민을 한다.....0            | 1 | 2            | 3         |            |           |
| 85.나의 성격은 남에게 호감을 주지 못한다.....0              | 1 | 2            | 3         |            |           |
| 86.나의 지식수준은 나의 이상과 거리가 멀다.....0             | 1 | 2            | 3         |            |           |
| 87.나는 나(또는 우리 집)의 경제적 능력과 재산에 만족한다.....0    | 1 | 2            | 3         |            |           |
| 88.나는 교우관계 문제로 고민을 한다.....0                 | 1 | 2            | 3         |            |           |
| 89.나의 경제적 능력은 부모의 기대와 거리가 멀다.....0          | 1 | 2            | 3         |            |           |
| 90.나의 인생관과 가치관은 나의 노력에 따라 잘 확립될 수 있다.....0  | 1 | 2            | 3         |            |           |
| 91.나는 주변 동료들에 비해 자기조절 능력이 뛰어난 편이다.....0     | 1 | 2            | 3         |            |           |
| 92.나는 사회적 신분 때문에 고민을 한다.....0               | 1 | 2            | 3         |            |           |
| 93.나의 행복에 있어서 외모는 중요하다.....0                | 1 | 2            | 3         |            |           |
| 94.나의 인생관과 가치관의 확립 정도는 부모의 기대와 거리가 멀다.....0 | 1 | 2            | 3         |            |           |
| 95.나는 나의 인생관과 가치관의 확립 정도에 만족한다.....0        | 1 | 2            | 3         |            |           |
| 96.나의 사회적 신분은 나의 이상과 거리가 멀다.....0           | 1 | 2            | 3         |            |           |
| 97.나의 행복에 있어서 대인관계 능력은 중요하다.....0           | 1 | 2            | 3         |            |           |
| 98.나는 지적능력 문제로 고민을 한다.....0                 | 1 | 2            | 3         |            |           |
| 99.나는 주변 동료들에 비해 성격적인 매력이 있는 편이다.....0      | 1 | 2            | 3         |            |           |
| 100.나는 우리집의 가족관계에 만족한다.....0                | 1 | 2            | 3         |            |           |

|                                             | 전혀<br>그렇지 않다 | 약간<br>그렇다 | 상당히<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01.나의 지식수준은 나의 부모의 기대와 거리가 멀다.....0        | 1            | 2         | 3          |           |
| 102.나는 주변 동료들에 비해 대인관계 능력이 우수한 편이다.....0    | 1            | 2         | 3          |           |
| 103.나의 이성관계는 부모의 기대와 거리가 멀다.....0           | 1            | 2         | 3          |           |
| 104.나의 행복에 있어서 자기조절 능력은 중요하다.....0          | 1            | 2         | 3          |           |
| 105.나의 인생관과 가치관의 확립 정도는 나의 이상과 거리가 멀다.....0 | 1            | 2         | 3          |           |
| <hr/>                                       |              |           |            |           |
| 106.나는 나의 자기조절 능력에 만족한다.....0               | 1            | 2         | 3          |           |
| 107.나의 행복에 있어서 성격은 중요하다.....0               | 1            | 2         | 3          |           |
| 108.우리 집의 가족관계는 나의 노력에 따라 좋아질 수 있다.....0    | 1            | 2         | 3          |           |
| 109.나의 자기조절 능력은 나의 이상과 거리가 멀다.....0         | 1            | 2         | 3          |           |
| 110.나는 주변 동료들에 비해 이성관계가 원만한 편이다.....0       | 1            | 2         | 3          |           |
| <hr/>                                       |              |           |            |           |
| 111.나의 행복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과 재산은 중요하다.....0       | 1            | 2         | 3          |           |
| 112.나의 대인관계 능력은 부모의 기대와 거리가 멀다.....0        | 1            | 2         | 3          |           |

## 《 L O C 》

아래 질문지에는 번호 하나에 두 가지 의견이 실려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이 두 가지 중에 당신의 생각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의견의  
 번호를 (    ) 에 써 넣어 주십시오.  
 한 문항도 빠짐없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    ) ① 아이들이 빗나가는 것은 부모가 너무 야단을 치기 때문이다.  
           ② 아이들이 빗나가는 것은 부모가 너무 엄격 기르기 때문이다.
2. (    ) ① 일어날 일은 기어코 일어나고야 만다.  
           ② 노력하지 않고 운수만 믿을 때에는 결과가 아주 좋지 않다.
3. (    ) ① 세상은 착실한 사람이 손해를 보게 마련이다.  
           ② 착실히 사는 것이 세상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다.
4. (    ) ① 자식은 가르치기 나름이다.  
           ②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될 아이는 안 된다.
5. (    ) ① 사람은 모두 이기적이다.  
           ② 사람의 본성은 남을 돕기를 좋아한다.
6. (    ) ① 계획만 잘 짜면 일은 다 된 거나 다름없다.  
           ② 아무리 계획을 잘 짜도 운이 나빠 그르치는 수가 있다.
7. (    ) ① 하려고만 하면 부정부패는 일소할 수 있다.  
           ② 정치인들이 하는 일에 일반인이 손을 쓰기란 대단히 힘들다.

8. (    ) ① 해야 할 일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이다.  
 ②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정해주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이다.
9. (    ) ①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밉다.  
 ② 사람은 사귀어 보면 다 좋다.
10. (    ) ① 사람에 대한 불평등을 모두 없애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가 자기의 권리를  
 지키고 주장해야 한다.  
 ② 사회의 모든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집권자 자신의 이해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11. (    ) ① 내가 노력해야 좋은 배필을 만난다.  
 ② 연분이 닳아야 좋은 배필을 만난다.
12. (    ) ① 자기의 잘못은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② 잘못은 했지만 덮어두는 것이 좋을 때가 더러 있다.
13. (    ) ① 잘살고 못살고는 팔자소관이다.  
 ② 얼마나 잘 사느냐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에 달려 있다.
14. (    ) ① 국민도 나라 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② 일반 국민은 나랏일에 왈가왈부해 봤자 소용없다.
15. (    ) ① 뿔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②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16. (    ) ① 사회의 부정은 대개 정치인들에게 잘못이 있어 그렇다.  
 ② 사회의 부정은 국민 하나 하나에 그 책임이 있다.
17. (    ) ①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  
 ② 정치 및 사회적인 일에 적극 참여하면 우리는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8. (    ) ① 사람이란 결국 자기의 값어치에 따라 존경을 받게 마련이다.  
 ② 불행한 일이긴 하나 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가끔 있다.

19. (    ) ① 돈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벌면 된다.  
          ② 돈은 많이 벌면 벌수록 좋다.
20. (    ) ① 농사가 잘되는 것은 하늘의 소관이다.  
          ② 농사가 잘되고 안 되는 것은 그저 부지런히 일하는데 달렸다.
21. (    ) ① 유능한 사람이라도 운이 나쁘면 지도자가 될 수 없다.  
          ② 유능하면서도 지도자가 못되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기회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The Relationship of Self-concept, Locus of control and Anxiety

A THESIS SUBMITTED TO THE GRADUATE SCHOO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By

Soon Sil Kwon

SEOUL, KOREA

December, 2001

The undersigned certify that they have read this thesis and that in their opinion it is satisfactory in scope and quality as a thesi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Psychology.

THESIS COMMITTEE

Chairman \_\_\_\_\_

Choon Jae Lee

Member \_\_\_\_\_

Nam Woon Chung

Member \_\_\_\_\_

Ki Joong Kim

December, 2001

GRADUATE SCHOO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relationships of the whole-domain self-concept, locus of control and anxiety. To investigate interaction between self-concept and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which influences the anxiety-buffering effects.

317 undergraduates students (68 male and 249 female, mean age 21.88)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degree of state-trait anxiety, locus of control and self-concept were measured by completing self-report. Anxiety was measured with STAI-S, STAI-T Inventory, Rotter's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Inventory and Multiphasic Self-Concept Inventory were used.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test method and 2×2 ANOVA method using SPS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First, low self-concept group showed higher anxiety than high self-concept group. Second, the external control group showed higher trait anxiety than internal control group. Third, when perception of high improvability self-concept domain has low self-concept, external control has lower anxiety than internal control. On the other hand, when perception of low improvability self-concept domain has low self-concept, internal control has lower anxiety than external control.

Finall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uture study were discussed.

---

key words: anxiety, self-concept, locus of control